

에이즈(AIDS)의 감염 경로, 증상 및 예방법

최강원 · 서울의대 내과

특집 · 에이즈 (AIDS)

◀10

1. 에이즈의 감염 경로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염은 감염된 환자와의 성적 접촉을 통한 전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수혈이나 출산과 관련되어 감염될 수도 있으나 그 빈도는 성적 접촉에 의한 감염보다 훨씬 적다.

성적 접촉에 의한 감염은 남성 동성간 성교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더 크지만 이성간의 성관계로 감염되는 경우가 더 흔하며, 구강 성교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성기에 상처가 있거나 성병을 앓고 있는 중에 성관계를 가지면 전염의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환자의 침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만 키스로 감염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다. 콘돔을 사용하면 감염의 빈도

를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혈을 통한 감염의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으면 90~100%에서 감염이 일어나지만 수혈 혈액에 대한 에이즈 항체검사를 시행한 후로 수혈에 의한 감염은 극히 드물다.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산한 아기는 약 1/4에서 에이즈에 감염되며 출산 후 수유에 의해서도 전염이 가능하다. 임신 중 항 에이즈 치료제를 복용하면 신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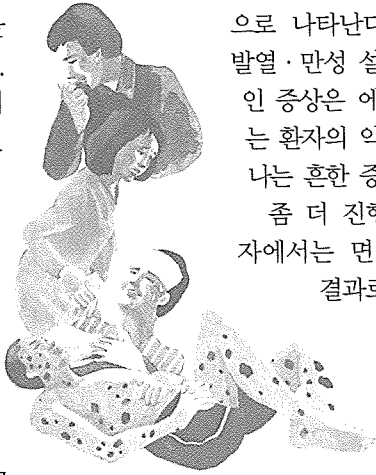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상기 경로 이외에도 환자의 혈액에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리게 되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위험도는 약 0.3% 정도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거의 모든 체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만 눈물, 땀, 소변을 통한 감염은 보고된 바 없다.

2. 에이즈의 증상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의 임상경과는 매우 다양하여 환자마다 증상이 나타나

기까지의 기간이 다양하다. 체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약 50~70%의 환자에서 몸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는 1주에서 수주간 지속되고 특별한 치료없이 호전된다.



특징적인 증상이 없으므로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환자는 급성기를 거친 후 무증상의 잠복기로 들어가는데, 잠복기는 감염이 일어난 후 대략 10년간 지속된다.

잠복기 동안 환자는 정상인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 동안에도 바이러스는 계속 증식하고 있으며, 치츄치츄 면역기능을 파괴·손상시키다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면역기능 저하에 의한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된다.

초기 증상은 입안이 험고 백태가 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의 바이러스 감염인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데, 이는 작은 물집 여러개가 피부의 한 부분에 모여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여러번 재발하는 경우 에이즈를 의심하게 하는 소견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피부 병변이 에이즈의 초기 증상

으로 나타난다. 체중감소·발열·만성 설사의 비특이적인 증상은 에이즈로 확진되는 환자의 약 9%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다.

좀 더 진행된 에이즈 환자에서는 면역기능 저하의 결과로 각종 세균·곰팡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발생하고 악성 종양

이 호발한다. 감염의 부위별로 살펴보면, 폐렴이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서 기침·가래·발열·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결핵·주폐포자충이 주 원인이며, 기타 세균이나 종양도 폐렴을 일으킨다.

위장관 감염도 흔한 증상으로, 구강 백태, 음식을 삼킬 때 유발되는 통증, 설사, 항문 주위 궤양 등의 증상이 흔히 관찰된다. 신경계를 침범하는 증상도 자주 관찰되는데, 두통, 기억력 저하 등의 가벼운 증상부터 치매, 정신착란 등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병이 진행되면 약 1/3 이상의 환자에서 말초 신경염에 의한 하지 통증을 느끼게 된다. 후기로 갈수록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데, 피부암, 입파선암, 자궁암이 호발한다.

3. 에이즈의 예방

에이즈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기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예방법이다. 에이즈 감염자와의 성접촉, 남성간의 성관계, 여러명을 대상으로 하는 문란한 성행위가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감염의 위험이 크다.

콘돔의 사용이 감염의 위험을 줄여 주지만,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 콘돔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염의 위험은 100명당 연간 7.2건의 감염이 일어났으며, 규칙적으로 콘돔을 사용하여도 100명당 연간 1.1건의 감염이 일어났다. 라텍스 콘돔이 비교적 안전하며, 살정제(nonoxynol-9)가 포함된 경우 감염의 가능성이 더욱 떨어진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취급하는 보건직 종사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데, 모든 환자로부터 얻은 검체는 일단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안전하다.

혈액이나 혈액에 오염된 검체 취급 시 장갑을 착용하며, 장갑을 벗은 뒤 손을 세척한다. 혈액이 튜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경, 마스크, 가운을 착용한다. 혈액이나 오염된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에 튀었을 경우,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세척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습진이 심한 경우 오염된 검체의 취급을 삼가야 한다. **㉔**